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

강현욱(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1. 우리도 뉴노멀을 준비하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에 260만명 확진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은 빛이 났습니다. 감염의심자 전수조사 및 이동경로 공개를 비롯한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과도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민주적인 정부정책,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방역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는 소태산 대종사가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 예언이 현실이 되는 듯 세계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성과 정신문명을 담당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 형성의 큰 축을 맡아왔던 종교는 얼마만큼 기여했을까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높은 전염률과 전파속도로 인해 시작된 ‘물리적 거리두기’는 인류를 발전시켜온 사회적 교류와 협력, 연대 방식 등을 기술문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화기기의 발달이 가져온 ‘개인화 현상’은 이제 ‘초개인화’가 되며 개인들의 고립화는 우리 사회에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온라인이 대체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경제활동 위축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삶부터 위협해 들어 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수준의 최악의 경제위기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인류사회에 악영향만 가져 온 것은 아닙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멈출 줄 모르고 발전해온 인류문명으로 인해 붕괴되었던 자연 환경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스실이라 불리던 뉴델리의 하늘이 파란색으로 돌아왔고, 60년 만에 막아진 베네치아의 물길엔 물고기와 돌고래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분부장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표현 했듯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위해 기존의 가치나 방법으로는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을 준비해야 한다 말합니다. 종교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뉴노멀 종교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종교활동 중단’외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종교가 우선해야 할 것은 뉴노멀 시대에 대한 준비가 아닌 인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들’과 ‘하지 못했던 이유’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 집단도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개인들의 고립화현상, 재난은 평등했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았던 경제적 양극화, 인류가 멈춰야만 같이 멈추는 환경의 위기 등등 오랫동안 우

리가 외면했던 문제들을 속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코로나 시대에 종교의 역할과 아쉬운 점.

코로나19 시대에 신천지 ‘대구교회’의 사례는 코로나19시대의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보다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원불교를 비롯하여 천주교, 불교이 정부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일시적 종교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대중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위 사례에서 2가지를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종교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다른 집단 보다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큰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교인 비율은 2017년 46% 2019년 43%로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어떤 집단 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각 종교들의 행보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의 사례는 사회문제를 등한시하고 자기 구원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 행위가 공동체에 실질적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우리 원불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들이 ‘물리적 거리두기’에 동참 하기 위해 ‘일시적 종교활동 중단 선언’을 한 사례는 현재의 위기 상황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종교활동 중단’ 이외에 우리의 역할은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성적인 것은 좋으나 종교적인 것은 싫다.’고 말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종교활동 보다는 개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나 영성 향상을 위한 명상이나 마음챙김, 마음공부 등이 요구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8일 오كل랜드교당의 크리스크레겔로 원무님이 한울안 신문에 “어떻게 우리는 서로가 함께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립된 존재에 있어서의 마음챙김”, “사사불공의 정신. 당신의 마음공부가 자신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는 또한 다른 이들을 살피라는 것의 의미”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종법사위에 오르신 이후 전 교당에 선방을 개설할 것을 권유하셨고, 그에 따라 기존 기도와 천도재 등 기원 중심, 타력적 종교 활동이 중심이 되었

던 교당 활동이 일상적 속에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수행중심의 종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19로 인해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 모든 활동들이 중단 되어, 고립화된 개인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어 아쉬움이 큼니다. 그러나 크리스크레겔로 원무님이 소개한 오프라인 명상그룹이 온라인 명상을 병행했을 때 훨씬 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온라인 개인 명상만 했던 이들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명상을 했을 때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연구 결과는 최근 비대면 접촉으로 인해 온라인 법회를 시도한 우리에게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고립화된 개인들의 ‘초개인화’ 문제가 우려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원불교가 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성’이 더욱 중요해 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일원의 진리를 내 삶에 발현시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수행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리스크레겔로 원무님의 “어떻게 우리는 서로가 함께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결국 원불교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 없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느끼고 알고 그에 올바른 보은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 속 명상이 곧 일상 속에서 은혜를 생산하는 보은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놔야 내 주위의 은혜를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어떻게 보은을 해야 은혜가 재생산되는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보은 활동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는 신앙 행위에 있어서 ‘기도’는 강조되었지만 사문에 대한 보은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은의 응용무념의 도는 개인의 수행적 성격이 강하지만 무자력자를 보호하고 사농공상 거래 간에 자리이타를 행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보은 조목들은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구체적인 결과를 나투내어야 만하는 보은 조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봉공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배포한 것은 종교활동 중단으로 개교당이 선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봉공회를 중심으로한 봉사 중심의 보은활동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더 가속화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무자력자가 양성되고 경제활

동에 있어서 자리이타가 무너져 가혹화 될 노동환경, 곧 닥치게 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등의 사회 문제들은 아무리 감사일기를 써도 은혜를 느끼기 힘든 배은의 현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존본능으로 자칫 고립화 될 수 있는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진 존재이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예견 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야 ‘모두가 부처입니다.’라고 입으로만 외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이 아닌 실질적인 은혜가 생산되는 신앙 실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원불교 신앙행위인 무자력자 보호의 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자리이타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불의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교단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또 다른 고민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적인 것은 좋지만 종교적인 것을 싫다.’라는 흐름은 결국 기존 종교조직들이 유지되기 힘든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 6년간 원불교 교도 누적증가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5만명이 증가하였지만 매년 증가율은 급격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총교도 39만명 중 미관리 교도가 25만명이고 관리교도가 14만명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교당 출석인원은 더 적을 것입니다. 교단 운영을 위한 경제상황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으나 매년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공을 하는 교도인원의 노령화가 주요원인이겠으나 종교적 권위와 대중들이 느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무엇 기댄 종교에 헌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대적 원인이 가장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대중 사님의 말씀대로 출가교도들 또한 각자 직업을 가지며 대중들에게 기여할 종교 활동 즉, 법회, 수행지도, 기도 등은 봉사의 영역으로 활동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라면 미국 실리콘벨리의 명상지도자들처럼 정신수양 지도하며 교당유지비를 생산하거나 이 사회에서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들을 통해 원불교라는 종교의 효용성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을 찾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사실 위의 고민들은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맡아 하고 있었던 현실이었고 우리가 진작 고민했어야 할 고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더 많은 고민들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나누다 보면.. 방법도 찾겠지요..